

말씀의 샘

보이는 현실보다 들리는 진리로 살기 <사사기 7장 9절~15절>

성경에서 보이는 것만 좇다 망한 인생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 13: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말까지 온 땅에 물이 넘었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현실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롯의 선택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면 안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대로 좇다가 롯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반면, 롯이 소돔으로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행하니 광야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 13: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현실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황량한 사막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보이는 대로라면 절망적입니다. 이 보기에도 아무 쓸모없는 땅을 주신다구요? 그것도 자손 대대로 주신다구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렇게 놀랍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롯이냐? 아브라함이냐?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며, 무엇을 좇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보고 듣고 결정하는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7: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 엄청난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현실이 그렇게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보여지는 이 엄청난 광경은 현실입니다.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이들과 싸워야합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이날 칼을 쓰는 전사자만 십이만이었다고 나옵니다. 도망간 자가 만 오천명이었구요. 그래서, 최소 십삼만오천+α의 군대가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믿음을 선택해야하는 삶의 자리는 이토록 눈에 보이는 위협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합니다. 보이는 현실에 압도될지, 아니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갈지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오직 현실밖에 남는 것이 없으니 현실을 좇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 가라고 하신 이유는, 많은 숫자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8: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들어야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뒷받침할 싸인만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야합니다. 민수기 13장에 12정탐관을 보내실 때도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만 보고 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낀 자손의 덩치와 그들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할 싸인을 버리고, 오히려 말씀과 상관없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 할 싸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강단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 이상 싸인이 오면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둘째, 믿음은 완료형입니다.

사사기 7: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직접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적군들이 서로 나누는 꿈 얘기를 듣고, 그중 한명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기드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며 선포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여기에 동의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글쎄요 상황이 되어봐야 알죠” 이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어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주신 약속을 이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의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좇고 현실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2015. 9. 20 주일에배 이 강화 목사

2015. 9. 2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성 경 봉 독 ----- 여호수아 24장 15~21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만 섬기는 삶”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교제의 시간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